

# 소 연방 군사교리의 기원과 발전과정 : 1917-1991

李 錫 浩  
(국방대학교 교수)

1. 서 론
2. 군사교리의 개념
3. 기 원
4. 변천 과정
5. 결 론

## 1. 서 론

소연방 군대는 1917년 11월 7일 레닌과 트로츠키가 주도한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과 함께 등장하여 1991년 12월 25일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소연방의 붕괴가 내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외부의 침략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연방군대는 단 한번의 소총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없이 소연방 구성 공화국별로 해체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연방의 군대는 제정러시아 군대와 다르다고 하지만 어느 면에서나 제정러시아 군대를 모태로 하여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닌은 공산주의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대내외 세력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군사력이 필요했었다. 제정 러시아 군대에 근무했었던 장사병들이 공산주의 사상과 제도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레닌은 그들이 군대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1918년 2월 21일 레닌은 “사회주의 조국이 위협에 처해있다”고 선언했으며, 2월 23일에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제정러시아 군대의 장병들 약 6만명을 공산주의 군대에 가입시켰다.<sup>1)</sup> 내전(1918-1921)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주역들은 모두가 제정러시아 군대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장교들이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러시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영웅인 주코프(Georgi K. Zhukov)는 혁명 당시 기병 중위이었다.

제정러시아의 군사사상과 제도를 소연방 군대가 그대로 물려 받았지만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는 3가지 측면이 있었다. 첫째로 공산당이 군대의 모든 면을 통제했다.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조직속에 당 조직이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공산당이 군대를 지배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당 조직이 국방부에는 총정치국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대대급까지 당 조직이 있었다. 모든 부대의 부지휘관중에 1명은 당에서 임명한 정치장교이었다. 당은 군대의 정치사상적 동향뿐만 아니라 부대훈련과 교육분야까지 간섭하였다. 둘째는 소연방시대에 국가의 군사문제에 대한 정치의 우월성을 인정하였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군사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였지만 군사적 관점보다 정치적 관점을 군사적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제정러시아 때는 프리시아의 영향을 받아 군사와 정치를 분리하여 군사적 전문성을 존중하여 주는 경향이였다. 셋째로 제정러시아 시대에 없었던 군사교리가 국가문서로 채택되어 군사관련 모든 활동의 기본이 되었다. 군사교리의 역할과 중요성은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늘날 러시아 연방에서도 국

1) 소연방시대 2월 23일이 국군의 날이었음.

가의 대내외 정책, 군사·안보 정책의 기본지침으로 되어있다.

공산주의 시대에 군사교리는 공개적으로 전문이 발표된 적이 없었지만 국방정책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었다. 국방정책의 기본지침은 군사교리으로써 국가와 군대에 의해 인정되었었다. 군사교리는 국가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군대를 조직하고,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항상 존재해야 하는 일종의 국가법이었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한 후에 소연방에서는 군사관련 국가안보개념이 격렬하게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군사교리의 수정이 제기되었다. 이때 러시아 군사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군사교리 없이 군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신국가안보개념에 적합한 새로운 군사교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2)</sup>

어느 나라의 경우나 그 나라의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을 이해하는데 군사교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소련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군사교리가 국가의 문서로 되어 있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기본지침으로 소련 군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나아가 군사정책과 전략뿐만 아니라, 소련이 당면한 군사적 과제와 관심, 군 발전 추세 등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연방 군사교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로 군사교리의 개념, 둘째로 군사교리의 기원과 변화과정, 셋째로 변화과정을 설명하면서 군사교리의 역할과 군사교리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과거 공산주의 시대와 오늘날 러시아를 비교할 때 정치이념과 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따라서 군사교리도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군사교리의 개념, 중요성과 역할에 관해서는 과거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으며 형식과 구조도 거의 비슷하므로 오늘날 러시아연방의 군사교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시대의 군사교리부터 이해해야 한다.

2) Maj. Gen. I.N. Vorobyev, “군사교리의 기본적 원칙들”, *Voennaia Mysl*, 11-12/1991, p. 22.

## 2. 군사교리의 개념

모든 국가에 군사교리(Military Doctrine)란 용어가 있지만 각 국가의 군대역사의 유산과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그 의미, 중요성, 역할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러시아연방처럼 군사교리를 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문서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군사교리란 국가적 문서는 없어도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상위개념으로 역할을 하는 문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있다. 미국의 경우 매년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 일본의 경우는 「방위부분의 특별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교리의 구성, 내용, 성격은 국가마다 다르다. 각 국가들은 지정학적, 과학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군사관련 역사적 원인(Cause)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과 형태의 군사교리를 갖고 있다. 군사교리는 그 국가에서 군사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가능한가에 관해 직업군인들과 민간지도자들의 사고(thought 또는 idea)를 반영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민간지도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군사교리는 특히 전투행위 및 방식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며 국가의 군사력을 반영한다. 군사태세, 무기체계, 군 지휘체계는 어느 나라가 어떠한 군사교리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어떤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며, 그러한 군사적 수단이 어떻게 동원되는가, 그리고 병력과 장비가 전장터에서 어떻게 기동하는가가 군사교리의 중요내용이다.

주로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의 종류에 따라 군사교리의 성격을 공격적, 방어적, 억제적으로 분류한다. 공격적 교리는 적을 무장해제시키고 궁극적으로 적의 군사력을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방어적 교리는 적이 추구하는 목적을 거부하려고 하며, 억제적 교리는 공격자를 응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sup>3)</sup>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는 이러한 분류에 적합하

3) Barry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Ithaca : Cornell University

지 않다. 러시아에서 군사교리는 작전 또는 작전술보다 전략과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상위개념이다.

군사교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첫째는 하나의 주어진 국제체제 내에서 각 국가의 군사교리는 국제정치질서에 영향을 준다. 군사교리의 기본성격이 공격적, 방어적, 억제적인가에 따라 군비경쟁의 강도, 전쟁발발의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 둘째로는 국내에서 고용된 수단들의 정치적·군사적 일치성에 따라 군사교리는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 군사교리가 국가전략의 정치적 목표와 통합되지 않는다면, 즉 군사교리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도구를 정치인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군사교리는 국가안보이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군사교리가 국내외 정치적 환경, 적의 능력, 군사기술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안보이익에 해를 미칠 것이다. 즉 군사교리가 국제정치의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환경에 대응하여 충분히 자기혁신적이지 못하면 국가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소연방의 군사교리는 과거 공산주의체제가 수립되면서부터 국가적 수준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강력한 구속력과 정치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논리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러한 전통과 권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1917년 10월 혁명 전·후 시기에 군역사가이며 장군이었던 스베친(Alexander A. Svechin)은 그의 글 “Chto takoe voennaya doktrina?”(군사교리란 무엇인가?)에서 “군사교리란 군대역사가 이해되고 군대경험과 군대연구를 다루는 관점에서 주어진 명칭”이며, “군대는 군사교리의 지침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4)</sup> 스베친의 이러한 인식을 프룬제가 받아들여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러시아연방 군사과학원 원장인 가레예프(Makhmut A.

Press, 1984), p. 14.

4) A. Svechin, “Chto takoe voennaia doktrina?”, *Voennoe Delo*, vol. 1, no. 65(March 1920), p. 39.

Gareev)는 “군사적 문제는 국가적 수준에서 하나의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군사독트린이란 공식적인 문서 및 법령의 채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sup>5)</sup>

공산주의시대에 소연방의 군사교리는 군사 정치적 측면과 군사기술적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기초)은 국가의 안보정책(또는 국가전략)에 의해 결정되고, 군사정책의 기본적 내용이다. 이 부분은 전쟁원칙, 장차 어떤 종류의 전쟁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이론, 국가의 전쟁관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기초는 국가의 정책과 체제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산주의 시대에 매우 안정적이고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에 비해 군사기술적 측면(기초)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현실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가 장차 전쟁의 양상(또는 형태)을 정의할 때, 군사기술적 측면은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그러나 군사기술적 내용이 군사정치적 사항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군사과학과 술(Military Science and Art)의 발전, 전략, 작전술, 전술의 변화와 발전에 의해서도 군사기술적 내용은 영향을 받는다. 군사기술적 측면은 군사력의 구조, 훈련과 교육, 장비(무기체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러시아연방시대에 와서 군사교리에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었다. 군사경제적 측면(기초) 또는 군사교리의 군사기술적·경제적 기초(측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방위산업, 군사기술, 국방재정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가의 발전전략(또는 대전략)을 반영하며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기초를 제공한다.

소연방시대에 군사교리는 군사력 발전의 기본 추진력이었으며 전쟁시 군사력운용에 관한 지침들이었다. 또한 소련공산당의 군사정책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이중적 역할은 군사교리가 바로 군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천력이 있었다. 군사과학과 술은 공개적으로 토의하고 논

5) M. A. 가레예프, “러시아와 선진국들의 군사독트린 발전추세”, 심경옥·유영철(편지), 『제1차 한-러 국방학술회의』(한국국방연구원, 1999), pp. 10-11.

쟁을 하지만 논쟁점이 교리로써 채택되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실행되고 지켜져야만 했다. 군사교리의 이러한 위치는 소연방 방어의 기초로써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 시대에는 군사교리가 1925년 1월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채택된 이후 2차 세계대전, 전략핵무기 등장, 고르바초프의 체제개혁 등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전체가 발표된 적은 없었다.

교리에 관한 개념정의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원칙, 원리에 관한 것들이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를 종교하고 할 수 있다. 군사교리의 경우는 전자에 속하나, 차원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미국은, 군사교리란 “군대가 국가목적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군사행동을 지도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6)</sup> 그리고 군사교리가 적용되는 실례로써, 군사규정, 야전전술교리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공식적 문서로써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군사교리가 국가적 차원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의도 있다. 포센(Barry R. Posen)은 군사교리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지는 않고 이 용어를 “군사적 수단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대전략(Grand Strategy)의 하위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대전략이란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가이론”이라고 정의한다.<sup>7)</sup>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군사교리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군사행동의 지침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체계”이다.<sup>8)</sup> 그러나 국가적 차원의 국방정책, 군사전략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소련의 경우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군사교리의 개념과 역할을 국가적 차

6) The Joint Chiefs of Staff,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1988), p. 118.

7) Posen, *ibid.*, p. 13.

8)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이론연구』(육군교육사령부, 1987), p. 22.

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공산주의자들이 군대를 세울 때부터 시작했다. 내란(1918-1921)이 끝난 후 러시아의 군사교리는 프룬제(Mikhail V. Frunze), 바체티스(Ioakim I. Vatsetis), 트로츠키(Leon Trotskiy) 등에 의한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프룬제의 개념과 시각이 받아들여졌다. 프룬제에 의하면 “국가는 미리 모든 분야에서 군사정책의 본질을 정의해야만 하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군사적 의도와 목표를 결정하고 국가전체를 위한 군사적 행동계획을 명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sup>9)</sup> 프룬제의 이러한 주장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군사교리에 대한 인식이며 기본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룬제에 따르면 국가가 정의하는 군사정책의 본질에 따라 군대는 장차 국가가 수행해야 할 임무에 적합하게 조직되어야만 하고 군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통일되어야만 한다. 즉 군대뿐만 아니라 국가전체가 동의하는 하나의 통합된 군사교리가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의 통합된 군사교리는 국가를 위해서, 특히 군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군사교리에 포함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본질”에 대한 규명이며, 이것이 정의되면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은 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이다. 즉 국가는 방어적, 또는 공격적인 군사력을 건설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질문은 바로 어떠한 군사정책에도 기초이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군대의 조직(또는 구조), 군사장비(무기체계), 군사교육과 훈련이 결정되며, 나아가 군사관련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도 결정된다.<sup>10)</sup>

프룬제는 1921년에 발표한 글 “통일된 군사교리와 군대”(Edinaia voennaia

9) M. V. Frunze, “A Unified Military Doctrine for the Red Army”, from Harriet Fast Scott & William F. Scott, *The Soviet Art of War*(Boulder, Co.: Westview press, 1992), p. 28.

10) *Ibid.*, p. 29.

doctrina i Krasnaia Armia)에서 군사교리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어느 국가들이나 군사적 임무가 있으며 이 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내의 지배적인 견해를 근거로 하여 군조직 발전방향, 부대전투훈련방식, 군 지휘체제를 수립하고 있다. 군사교리는 이러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적용한 원칙들이다. 그리고 국가가 군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은 국가의 계급적 성격과 국가의 생산능력수준에 따라 결정된다.”<sup>11)</sup> 프룬제는 새로 건설되고 있는 붉은 군대(Red Army) 군사교리의 기초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국가의 권력이 노동자와 농민에 속하고 있는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을 군사적 측면보다 앞에 두었다.

프룬제는 군사교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기술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기술적 측면과 관련 군 구성원들의 교육과 훈련, 군대의 조직, 전투수행방식을 논하였고, 정치적 측면과 관련, 국가구조의 발전과 군사력의 관계를, 군사적 임무가 수행되는 사회적 환경과 군사적 임무의 본질 등을 토의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동서냉전체제가 되었고, 나아가 핵무기로 무장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사교리의 개념, 구조, 역할은 기본인식과 시각에 있어서 변하지 않았다. 1982년 소련군 총참모장 오가르코프(Nikolay V. Ogarkov)는 “군사교리는 장차 가능한 전쟁의 목표와 본질, 이 전쟁에 대비하여 국가와 군대의 준비, 이 전쟁의 수행방식에 관하여 주어진 시간에 하나의 주어진 국가에 의해 채택된 견해의 체계이다”라고 정의했다.<sup>12)</sup> 오가르코프는 같은 저서에서 어떤 국가의 군사교리이든지 다음과 같은 기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1) 장차전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성격의 적과 싸워야만 하나? 2) 국가와 군대가 전쟁을 수행

11) *Ibid.*, p. 29.

12) N. V. Ogarkov, *Vsegda v Gotovnosti k Zashchite Otechestva* (국가방위를 위한 준비는 항상) (Moskva: Voenizdat, 1982), p. 53.

해야만 한다면 그 전쟁은 어떤 성격인가? 3) 이런 전쟁에서 군대에게 어떤 목표와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어떠한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가? 4) 전쟁에 대비하여 국가는 어떻게 국가와 군사력을 건설해야만 하는가? 5)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만 하는가?<sup>13)</sup> 오가르코프는 군사교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치적 그리고 군사기술적. 그에 따르면 양측면 모두 군사분야에서 소련공산당의 정책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하며, 정치적 내용이 더 중요하고, 국제관계에서 세력균형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sup>14)</sup>

공산주의 시대에 발간된 군사백과사전에 의하면 군사교리를 “주어진 시기에 어떤 국가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쟁의 목적과 성격, 이러한 전쟁에 대비하여 국가와 군대가 수행하는 준비, 이 전쟁을 수행하는 정치적-군사적 방식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련의 견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5)</sup> 여기에서도 군사교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군사기술적. 이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정치적 측면은 장차 발발 가능한 전쟁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들의 방법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기초에 관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내용은 국가가 상당기간 동안 유지하여 온 정치적 목표와 계급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매우 안정적이고 명확하다. 군사기술적 내용은 사회정치적 목표와 일치하며 군사력의 구조와 장비, 교육과 훈련, 전쟁시 군사작전의 형태와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sup>16)</sup>

공산주의 시기에 군사교리의 사회정치적 측면은 맑스-레닌이론이 그 기초이었다. 소련군사교리가 우선적으로 핵·로켓트 전쟁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소련공산당과 군대는 핵전쟁을 포함하여 혁명전쟁 등 몇가지의 전쟁

13) *Ibid.*

14) *Ibid.*, p. 56.

15) “Doktrina Voennaia”, *Voennii Entsiklopedicheskii Slovar'* (Moskva: Voenizdat, 1988), p. 151.

16) *Ibid.*

유형을 지지하고 있었다. 장차 소련이 개입 가능한 전쟁유형은 물론,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전쟁유형을 맑스-레닌이론의 이름으로 합리화시켰고 전쟁과 군대에 관한 맑스-레닌이론의 원칙은 소련의 군사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원칙의 방법론적 기능은 국제무대에서 계급투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냉전시대의 적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전쟁과 군대관련 맑스-레닌주의는 전쟁의 본질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투쟁의 수단이었으며 이데올로기투쟁의 수단은 군사교리의 사회정치적 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sup>17)</sup>

소연방의 군사교리의 개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를 소개하려고 한다. 공산주의 시대나 오늘날 러시아에서나 군사교리, 군사전략, 작전술, 군사과학(Military Science), 군사술(Military Art, 또는 전쟁술 Art of War)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 미국, NATO 국가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매우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나, 러시아에서는 매우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소연방의 군사교리는 소연방의 공식적 정책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적인 견해와 평가가 아닌 공식적 견해의 통일된 체계이다. 즉 군사교리가 국가의 공식적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는 있을 수 없다.

군사교리와 대조적으로 군사과학은 “전쟁의 본질과 법칙, 전쟁에 대비하는 국가와 군대의 준비사항, 전쟁수행방식에 관한 지식체계”라고 정의되어 있다.<sup>18)</sup> 군사과학의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이 표현되어도 무방하다. 군사과학은 군사술, 군구조, 부대훈련과 교육, 군사경제, 후방조직에 관한 이론을 포함한다. 군사과학에서 군대의 지휘문제,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규모의 부대통제를 연구한다.<sup>19)</sup>

17) *Marxism-Leninism on War and the Arm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2), pp. 391-393.

18) “Voennaia Nauka”, *Voennii Entsiklopedicheskii Slovar'* (Moskva: Voenizdat, 1988), p. 136.

19) *Ibid.*

군사술(Military Art)은 군사과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군사술은 전략, 작전술, 전술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 작전술, 전술, 이 세 가지 요소의 각각은 군사과학적 지식에서 한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보충적이다.<sup>20)</sup>

전략은 “전쟁준비의 기초와 전쟁수행방식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군사술의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전략은 정책의 직접적 무기이다. 전략과 관련하여 정책은 지도적, 지시적 역할을 한다.” 전략은 “군대의 모든 군종에게 일반적이고 공통적”이다. 러시아는 “전쟁은 모든 군종의 통합된 행동에 의해 수행되며, 전쟁에서 모든 군종이 수행하는 행동의 조정은 오직 하나의 전략이라는 틀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sup>21)</sup>

작전술(Operational Art)은 “대규모의 야전군(군종, 병종의 혼합 편성된)이 연합 및 독립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이론과 실천에 관한 분야이다.” 각 군종은 군별 작전술이 있으며, 전선군(front)과 군(army)작전술을 포함한다. 군사술에 통합되는 한 부분으로써 “작전술은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전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방식들을 결정한다.”<sup>22)</sup>

전술의 개념은 우리나라나 미국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수개 사단들 또는 약간 적은 규모의 부대작전에 적용하고 있다. 전술도 군사술의 한 부분이며 모든 군과 모든 전투무기들이 대소규모로 전투 행위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방식에 관한 분야이다. 각 군은 각 군의 고유한 전술을 개발하며, 각 군내에서 무기별, 병과별, 부대규모별로 구분하여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공군은, 전투기, 폭격기, 전선공군, 전략공군별로 전술을 연구개발한다.<sup>23)</sup>

20) *Ibid.*, p. 211.

21) N. V. Ogarkov, “Strategiia Voennaia”, *Sovetskaia Voennaia Entsiklopediia*, vol. 7, pp. 555-565.

22) V. G. Kulikov, “Operativnoe Iskusstvo”, *ibid.*, vol. 6, pp. 53-57.

23) I. G. Borets, “Taktika”, *ibid.*, vol. 7, pp. 628-634.

### 3. 기 원

러시아에서 군사교리에 관한 토의는 1917년 공산주의 혁명전에 시작되었다. 러일전쟁(1904-5) 이후에 제정 러시아의 장교들은 군사교리의 필요성을 토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토의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중지되었다가,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을 치르고, 1차 세계대전의 참여를 끝낸 후에 다시 이어졌다. 소연방에서 최초로 발간된 군사전문지, 『Voennoe Delo(군사문제)』에 군사교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어떤 내용의 군사교리를 가져야 하는가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군대구조와 임무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하나의 교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내란으로 인해 이러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1920년에 앞에서 언급한 스페친 장군의 글 “군사교리란 무엇인가?”가 발표됨에 따라, 이 논의는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공산주의시대에 소련 군사이론가들은 스페친의 신분이 제정러시아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글과 그의 기여를 경시하였지만 그의 글과 주장이 러시아 군사교리와 사상에 매우 귀중한 통찰력과 힘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스페친의 뒤를 이어 소연방 군사교리의 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네즈나모프(Alexander Neznomov)이었다. 네즈나모프는 『군사문제』지에서 군사교리의 본질은 ① 전쟁에 관하여 사회, 정부, 국민의 견해, ② 전쟁에서 군사력은 어떻게 사용되어야만 하는가에 관한 견해, ③ 이러한 견해들에 관한 규칙의 정립, 이 세가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4)</sup>

소련 군사교리의 수립과정에 위의 두 사람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에서는 레닌이 제일인자이다. 러시아의 유명한 군사이론가

24) A. Neznomov, “Voennaya Dotrina”, *Voennoe Delo*, Vol. 4, No. 65(22 March 1920), pp. 98-9.

가레예프는 “소련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레닌이 세웠다”고 한다.<sup>25)</sup> 레닌은 전쟁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기본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On War)을 읽고 맑스와 엥겔스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군사관련 맑스주의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레닌의 군사이론에 클라우제비츠의 중요성은 레닌의 저서, 『전쟁과 혁명』(*Voyna i Revolyutsiya*)에 레닌화되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이다. 모든 전쟁은 전쟁을 야기하고 있는 정치체제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국가의 계급성격은 전쟁에 반영되므로, 국가의 계급성격은 군사제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레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자신의 신념을 군사교리에 심었다. 이것이 소련으로 하여금 언젠가 결정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신조를 갖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넓게 말하여, 맑시즘과 레닌이즘은 소련군사교리의 진화를 매우 깊이 있게 지배했다.

그러나 소련군사교리가 단순히 레닌의 지시에 따라서만 정의되고, 세워지는 않았다. 1920년대 초기와 중기에 국가적으로 하나의 군사교리를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에 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당대회와 당대표자 회의, 당과 군대의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각각의 의견들이 발표되었고 서로 반대입장에 서있는 두 대표자는 프룬제와 트로츠키이었다. 이때에 제기되었던 논쟁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적군(Red Army)은 군 지휘관과 정치위원이 권한을 공유하는 2중 지휘체제이어야 하는가 또는 군지휘관에 의한 단일지휘체제이어야 하는가? 2) 적군은 짜르시대 장교들을 수용해야 하는가? 3) 적군의 규율은 엄격 또는 자발적이어야 하는가? 4) 군대는 정규군, 또는 민병대 또는 당파적 조직이어야 하는가? 5) 공격이 소련군사교리에서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 6) 기동의 원칙이 적군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

25) Makhmut A. Gareev, *M. V. Frunze, Military Theorist* (Washington, D.C.: Pergamon-Brassey's Int. Defense Publishers, 1988), p. 7.

고 있는가? 7) 프롤레타리아적인 유일한 군사교리는 있는가? 8) 군사교리는 통일적이어야 하는가?<sup>26)</sup>

프룬제는 하나의 통합된 군사교리가 필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리고 소연방의 군사교리에는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적 성격, 군대의 프롤레타리아트적 성격, 내란에서 경험한 유일한 성격이 반영되어야 하며, 군사독트린의 군사정치적 측면과 군사기술적 측면의 상호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장차전쟁에는 지휘구조의 각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협조하고 통제를 요구하는 수백만명의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높은 수준의 협조와 통제는 하나의 통일된 군사교리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계층의 통합된 의지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sup>27)</sup>

프룬제의 이러한 주장에 가장 비판적이고 반대한 사람은 트로츠키이었다. 트로츠키는 그의 글 “군사교리 또는 가짜 군사교리주의”에서 하나로 통합된 군사교리는 필요하지 않고 이러한 군사교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과 협조를 위하여 군사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트로츠키는 적군은 이미 협조에 필요한 구조, 교육, 활동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군사문제의 경험적 성격이 군사력의 건설과 사용 관련 하나의 견해체계를 갖는다는 것은 해로운 것이며, 제한적인 군사교리는 위험하다고 믿고 있었다.<sup>28)</sup> 트로츠키는 프룬제가 강조하는 “공격”, “기동”도 매우 단순하고 혼란만 초래하며, 3년간의 내란경험을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두 사람간의 이러한 논쟁은 1925년 1월 프룬제가 트로츠키의 후임으로 군사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됨에 따라 끝났고 프룬제의 개념과 주장이 모두

26) Raymond L. Garthoff, *How Russia Makes War: Soviet Military Doctrine* (London: Allen and Unwin, 1954), p. 26.

27) Scott and Scott, *Soviet Art of War*, p. 29.

28) L. Trotsky, “Military Doctrine or Pseudo-Military Doctrinairism”, in *Marxism and the Science of War*, ed. Bernard Semmel(U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pp. 189-90.

받아들여져 소련군사교리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사항은 제외되었다.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교리는 공세적이 아니라 방어적 성격을 채택했다. 소련군사교리가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프룬제의 주장은 순수히 군사기술적 측면으로 제한되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만 소련은 공세적으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 4. 변천 과정

1930년대는 소련공산주의 국가, 그 군대, 이 군대의 군사교리가 공고화되고 발전되는 시기이었다. 국내환경은 국제적으로 소련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켜 주었고, 국내적으로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가져온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특징지워진다. 소련의 힘과 영향력의 증가는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J.V. Stalin)의 힘과 영향력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그에 대한 개인숭배가 성장하여, 그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독점적으로 통제했다. 이러한 현상은 군사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스탈린이 지지하는 견해가 군사교리를 지배했었다. 스탈린은 공세적 정향을 갖고 있는 군사교리를 선호했고, 이것이 군사조직에 반영되어야 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적을 적의 영토에서 패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의 국제정세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소련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은 유럽과 극동지역에서 파시즘과 군국주의의 출현이었다. 이러한 전개는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당시 소련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은 장차 전쟁은 사회경제체제가 서로 다른 체제간의 전쟁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국제상황은 소련은 정치사회체제가 다른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세력들과 전쟁이 임박해 있다고 암시했었다.

1930년대에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을 현실에

맞게 설명함에 따라 군사적 측면에 영향을 주었다. 소련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장차 전쟁은 어느 한쪽의 사회정치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대량의 군대와 자원이 동원되어 격렬한 전투가 장기간 지속되리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소련은 무기와 장비의 개선, 전략적 예비전력확보를 강조하면서 군사과학의 연구에 많은 노력을 투자하였다. 이때 군사과학의 한 분야로 군사술이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중심전투와 작전교리가 출현하였다. 이것은 소련이 1차 세계대전과 내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전보다 기동전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결과이다. 논리적으로 중심깊은 작전과 기동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련은 항공기, 탱크, 포병 같은 무기체계를 발전시켰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군사술과 무기체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투부대를 창설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30년에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투하체프스키(Mikhail N. Tukhachevskii)는 새로운 작전술의 중요한 수단으로 대규모의 기계화부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은 1936년에 발표된 소련의 야전교무령(Provisional Field Regulations of the RKKA\* for 1936)에 잘 반영되어 있다. 1930년대에 소련군에서는 탱크위주의 순수한 전격전을 선호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보병, 전차, 포병부대가 연합한 공격적 작전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주공방향에서 결정적인 공격과 맹렬한 추격만이 적의 병력과 장비를 철저히 파괴시킬 수 있다.”<sup>29)</sup>

정치적인 측면에서 군사교리의 내용이 변화된 것은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전쟁이 강요되고,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적으로 공세적 행동을 취하지만, 그전까지는 방어적 태세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유지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소련은 방어적 태세를 유지하기 보다, 다가올 전쟁을 예방하려고 노력했다. 전전(前戰)에 소련은 발틱국가들, 핀란드와의

\* 노동자와 농민의 붉은 군대.

29) Harriet Fast Scott and William F. Scott, *Soviet Military Doctrine* (Boulder, Co.: Westview, 1988), p. 13.

조약을 무시하고 점령 및 침략했으며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했다.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히틀러와 타협을 했다는 것은 전쟁을 예방, 또는 적어도 지연시키려고 한 스탈린의 전략이었다. 스탈린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일에 접근하면서도, 전쟁 직전에 소련군의 공격적 전투태세를 해체하고, 일부 부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전쟁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이 군사교리의 변화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전후에 소련은 전쟁예방도 소련군사교리의 정치적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합리화시켰다.<sup>30)</sup>

독일은 1941년 6월 22일에 소련을 침공하기 시작했다. 전쟁기간 중(1941-45) 군사교리의 변화는 없었다. 전쟁기간 중 군사전략이 군사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군사교리가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못했지만 이 전쟁은 전후 군사교리와 군사과학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스탈린은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 죽기까지 군사문제에 관해서도 독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어느 누구도 군사문제관련 스탈린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스탈린이 전후 소련군사교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내용은 “전쟁에서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5개”이었다. 이것은 1942년 2월 23일 스탈린이 지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후방의 안정, 부대의 사기, 사단의 질과 양, 군대의 무장, 지휘관의 조직적 능력.<sup>31)</sup> 군사적 측면에서 2차 세계대전이 소련의 군사교리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공격의 중요성이었다. 1943년부터 종전까지 소련군의 성공적 작전은 중심깊은 전투와 작전, 대량공격, 적이 자신의 영토에서 완전히 붕괴될 때까지 추격과 공격 등을 원칙으로 하여 이루어졌다.<sup>32)</sup>

30) R. A. Savushkin, “Zarozhdenie i razvitie sovetskoi voennoi doktrini”, *Voennno-istoricheski zhurnal*, 2(1988), p. 22.

31) Scott and Scott, *Soviet Art of War*, p. 80.

32) Valentin V. Larionov, “Soviet Military Doctrine: past and present”, in *Soviet Military Doctrine from Lenin to Gorbachev, 1915-1991*, eds, Willard C. Frank and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스탈린은 군대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완화시키지 않았고, 군사교리의 위상을 전쟁 전으로 환원시키지 않았다. 스탈린이 언급한 “항구적으로 작용하는 5개 요소”가 군사교리를 지배하였으며, 군사과학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 스탈린 하에서 군사교리의 개념은 전쟁 전부터 사라졌다. 전후에도 군사이론가들은 전쟁경험을 오직 일반적으로 서술할 뿐이며 스탈린이 군사적으로 천재라고 칭찬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이 군사교리의 발전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스탈린 말기에 군사교리의 군사적 측면은 발전을 가져왔다. 공개적으로 핵무기의 출현을 무시했지만 소련은 비밀리에 핵무기관련 토의를 진행시켰고, 비밀리에 핵무기와 운반체를 건설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독일과 일본의 패배가 가져온 국제정치상황은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에 영향을 주었다. 전후 문제들의 처리과정에서 미·소를 두개의 극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출현함에 따라 소련은 새로운 국제환경과 지전략적 군사상황에서 군사력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모색해야만 했다.

스탈린의 죽음(1953년 3월 5일)은 소련 군사교리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정치적 측면은 당시 공산당 제1서기이었던 흐루시쵸프(Nikita S. Khrushchev)의 영향력에 의해 소련 군사교리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즉 장차전에 관한 소련의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지 8년만에 소련 군사교리는 핵무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고 하면서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1920년대부터 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믿어왔던 신조가 핵무기의 출현으로 인해 재평가되었다.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시쵸프는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숙명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그가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평화적으로 같이 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모두가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다.<sup>33)</sup>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의 혁명적 변화는 군사적 측면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흐루시초프는 미사일이 핵탄두를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라 미사일과 핵탄이 군사교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미사일과 핵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정됨에 따라 군사과학과 군구조는 변화해야만 했다. 그 예의 하나로써 사단의 질과 양이 중요하다는 원칙은 사라지고 중무장된 기계화사단들이 1950년대 말에 원자전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끔 보다 가볍고,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자동화 소총사단으로 바뀌었다.

1959년까지 소련은 핵시대를 수용할 수 있는 군사교리를 완벽하게 다시 만들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평화공존과 전쟁의 새로운 성격을 받아들였고, 핵무기가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위협요인이며, 그러므로 소련군대는 핵무기의 우세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략로켓군이 창설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군종으로 간주되었고 핵무기를 모든 다른 군에도 도입했다.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제22차 전당대회에서 당시 소련 국방부장관 말리노프스키(Rodion Ia. Malinovski)가 새로운 소련군사교리의 기본원칙들을 소개했다. 그의 발표에 의하면 장차 전쟁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발발될 것이며, 이 전쟁은 핵로켓전쟁의 형태일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형태는 대륙과 대륙 간의 광활한 영토에서 일어나며 단시간내에 결정적인 군사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과 비교시 파괴력과 전쟁범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핵무기와 미사일에 의한 전쟁의 성격을 이렇게 묘사하면서도 소련은 각종 군종, 병종의 연합작전에 의해 최후의 승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자들이 기습적인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소련군대는 어떠한 기습공격도 격퇴할 수 있

33) Nikita S. Khrushchev, *On Peaceful Co-existence: A Collection* (Moscow: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1), pp. 8-10.

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는 전체적으로 핵전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sup>34)</sup>

새로이 소개된 군사교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변화된 점도 있지만 연속적인 측면도 있다. 전쟁을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킬 때까지 공세를 취하지 않겠다는 방어적 성격, 전격전보다 각종 군종과 병종이 참여하는 연합작전에 의해서만 승리를 할 수 있고, 전쟁은 기습공격으로 시작된다는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1950년대에 핵과 미사일의 출현이 소련군사교리에 상기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국가들에서 일어난 민족해방전쟁과 관련해서 정치적 측면의 변화가 있었다. 세계적인 핵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서구는 사회주의체제보다 유리한 위치를 갖기 위하여 조그마한 전쟁(지역전쟁, 다시 말해 민족해방전쟁)을 이용하여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소련은 생각했다. 즉 장차 세계적인 전쟁은 기습적인 핵공격 또는 지역갈등이 점차 확대되어 발생한다는 것이다.<sup>35)</sup> 전쟁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가에 대해 쿠바미사일위기(1962년 10월)가 있었던 이후, 소련은 소련이나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항하는 전쟁이 불가피하게 세계대전으로 된다는 주장을 중지했다. 쿠바 미사일위기가 미·소간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련 전쟁관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흐루시초프가 등장하고, 핵과 미사일을 근거로 하여 군구조가 바뀌었고 군사교리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이 방어적이고 군사적 측면이 공격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군사적 측면이 공세적 성격을 유지하였지만 내부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이 작전술보다 더 커다란 비중으로 등장했다. 전략핵무기의 출현으로 전략적 타격

34) Scott and Scott, *Soviet Art of War*, pp. 168-9.

35) V. D. Sokolovskii, *Soviet Military Strategy*, Third Edition, ed., Harriet Fast Scott (NY: Crane, Russak and Co., 1968), p. 181.

임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 수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믿음은 브레즈네프시대까지 지속되었다.<sup>36)</sup>

브레즈네프 시대(Leonid P. Brezhnev, 1964-1982)에 소련군사교리는 양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흐루시초프 때와 같으나, 그 강조점이 약간씩 변했다. 브레즈네프는 1966년 제23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소련은 어떠한 적도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전력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이제는 핵무기로 소련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었다. 1967년에 소련은 핵전투보다 재래식 전투에 기초를 두는 군사훈련을 시작했고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핵전쟁을 회피해야 하는 정당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sup>37)</sup> 브레즈네프는 스탈린과 흐루시초프보다 전쟁예방에 보다 더 관심을 보였다. 전쟁의 본질에 관한 견해는 변함이 없었으나 전쟁예방의 가능성을 보다 크게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소련은 자신의 군사력으로 미국을 견제할 수 있고, 특히 핵무기에 있어서는 미국과 균형을 이루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브레즈네프시대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에서 흐루시초프 때와 다른 점은 사회주의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혁명수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소련 자신은 제3세계의 민족해방전쟁을 지원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련과 기타 사회주의국가들에게 혁명을 수출하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발표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핵시대에, 핵무기로 무장되어 있지만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만도 전쟁이 수행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래식 전투를 중요시하였다. 군사과학은 핵무기에 대항하는 작전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전반적으로 각군은 핵과 재래전에서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6) David M. Glantz,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Soviet Union: A History* (London : Frank Cass, 1992), p. 190.

37) Raymond L. Garthoff, *Deterrence and the Revolution in the Soviet Military Doctrine*(Washington, D.C.: Brookings, 1990), p. 52.

다. 고르바췌프가 등장할 때까지 소련군사교리의 군사적 측면은 계속적으로 공격적 성격을 유지했다.<sup>38)</sup>

1985년 3월 고르바췌프가 소련공산당 총서기로 등장한 후에 소련의 군사교리는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부딪쳐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졌다. 1986년 2월 제27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고르바췌프는 국제관계와 안보문제관련 그의 개혁정책, 즉 “새로운 정치적 사고”에 입각하여 전쟁예방의 필요성과 합리적으로 충분한 방어수준의 유지를 발언했다.<sup>39)</sup> 동시에 고르바췌프는 5년전에 오가르코프가 주장했던 것처럼 소련군사교리는 순수하게 방어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고르바췌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련군대의 변화는 없었으나 소련군사이론가들이 방어시각에서 군사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대량파괴무기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대량파괴무기가 전술적, 작전술적 방어에 미치는 효과”, “전쟁초기에 어떻게 방어임무를 수행하는가?”이다.<sup>40)</sup>

고르바췌프의 이러한 발언이 있는 이후 군사교리의 방어성(defensiveness)과 군사력수준의 합리적 충분성(resonable sufficiency), 이 두 개념에 관한 논쟁은 날로 증가하였다. 이 두 개념이 소련군사교리의 변화에 핵심이므로 매우 조심해서 정의를 해야만 하였다. 두 개념은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두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나아가 방어성 개념은 군사교리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도 포용해야만 하였다.

당시 서구에서 이해한 고르바췌프의 방어성 개념(concept of defensiveness)은 “방어적 충분성 원칙을 기초로 한 전략적 방위태세와 미리 계획된 방어개념 위에 세워진 군사전략”을 의미하며, 소련이 이러한 군사전략과

38) Scott, “Soviet Military Doctrine in the Nuclear Age, 1945-1985”, p. 181.

39) Scott and Scott, *Soviet Military Doctrine*, pp. 101-104.

40) David M. Glantz, *Soviet and Commonwealth Military Doctrine in Revolutionary Times*(Ft Leavenworth, KS : 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 1992), p. 9.

전략적 방위태세를 실천하겠다는 공약으로 받아들였다.<sup>41)</sup> 이러한 개념정의로 볼 때 방어적 충분성(또는 합리적 충분성)은 방어성에 통합되는 한 부분이다. 당시 합리적 충분성에 관한 공식적 개념은 “외부공격을 방어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군사력을 갖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sup>42)</sup> 이 용어의 실질적 의미는 명확하지 않았다. “충분성”이란 의미가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군사력, 서로 다른 무기체계, 전쟁의 각 수준을 고려할 때, 충분성의 수준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다. 전략적 핵무기에 적용할 때 억제에 충분한 군사력 수준으로, 일반목적군(재래식 군사력)에 적용할 때 방어를 위한 충분한 군사력이라고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었다.<sup>43)</sup>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논쟁을 일으키면서 군사교리가 수정되어야만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었다.

군사교리의 변화를 소련이 모색했던 배경에는 군사적, 정치적 두 측면에서 그 이유가 있었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1985년 말에 소련 군사지도자들은 두 가지의 새로운 상황에 부딪혔다. 첫째로 서구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발전시켜 배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이러한 무기를 기초로 새로운 전술과 작전기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점점 경제적 어려움이 커가고 있는 소련에게 이것은 커다란 군사적 딜레마였다. 한마디로 소련은 고도의 군사기술로 향하는 군비경쟁을 시도할 수가 없었다.<sup>44)</sup> 정치적 측면에서도 군사교리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동기가 있었다. 미국과 중거리 핵무

41) *Ibid.*, p. 3.

42) David V. Dietrich and Ralph M. Hitchens, “The Soviet Strategic Debate: Striving for Reasonable Sufficiency”,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2, no.1 (March 1989), p. 1.

43) Raymond L. Garthoff, “New Thinking in Soviet Military Doctrine”, *Washington Quarterly*, vol. 11, no. 3(Summer 1988), p. 201.

44) Glantz, *Soviet and Commonwealth Military Doctrine*, p. 6. 서구의 이러한 기동개념을 미국에서는 Air Land Battle, 나토에서는 Follow on Forces Attack라 불렀다.

기협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받은 정치적 상처는 소련으로 하여금 외교와 안보정책결정에서 군사적 측면을 얼마만큼이나 고려해야 하는가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변화가 재27차 소련공산당 전당대회때 고르바초프의 연설에 나타났다: “안보는 군사기술적 수단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정치적 임무이다.”<sup>45)</sup> 고르바초프의 연설이후 소련의 군사이론가 레베제프(Iu. V. Lebedev)는 정치적 수단이 군사보다 우선적이라는 고르바초프의 견해를 지지하는 글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안보정책을 지원하는 군사적 수단의 선택들이 사회의 경제발전 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sup>46)</sup> 1980년대 중반에 소련은 이처럼 군사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교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배경을 갖고 있었다.

1987년에 들어서면서 군사교리를 수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개념을 정의하는 문제가 날카롭게 대두되었다. 이 두 용어를 정의하는 군인들과 전문가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47)</sup> 전통파, 온건파, 개혁파. 전통파의 대표들은 쿨리코프 원수(Vladimir G. Kulikov), 츠레치악 대장(Igor M. Tretiak)이며, 「합리적 충분성」은 미국과 나토가 주는 위협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전쟁에서든 적을 섬멸시키는 데 충분한 군사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사교리의 「방어적 성격」에 관해서도 이미 정치적 측면에 방어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군사적 영역으로 확대시키면 안된다고 했다. 온건파에는 야조프 대장(D. J. Yazov), 아크로메예프 대장(S. F. Akhromeev), 가레예프 대장(M. A. Gareev)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따르면 「합리적 충분성」은 전략적 안

45) F. Stephen Larrabee, “Gorbachev and the Soviet Military”, *Foreign Affairs*, vol. 65, no. 5(Summer 1988), p. 1005.

46) Iu. V. Lebedev, “Voennie doktrini i mezhdunarodnaia bezopasnost’”, *Kommunist*, no. 13(Sept. 1988), p. 111.

47) Dietrich and Hitchens, “The Soviet Strategic Debate: Striving for Reasonable Sufficiency”, pp. 9-10.

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측 군사력의 상호감축원칙이 요구되며, 특히 모든 감축은 상호적이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도 전통과들처럼 합리적 충분성의 기준은 미국과 나토의 위협수준이라고 믿고 있다. 「방어성」과 관련 군사교리의 군사적 측면의 공격적 성격에 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다. 개혁파에는 민간인 전문가들로서 카코쉰(Andrei A. Kokoshin), 세메이코(L. Semeiko), 쥬르킨(V. Zhurkin)이 대표자들이며, 이들은 「비공격적 방어(non-offensive defense)」를 주장했다. 이들은 군비 축소를 주장하면서 소련이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을 논할 때에도 미국과 나토의 위협을 그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소련 국방부 총참모부도 자신들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총참모부는 「방어성」은 일반목적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전쟁초기에 방어적 작전의 수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방어작전을 수행했는데도 적이 계속 공격하면 그때는 공격작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즉 총참모부는 적을 격퇴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총참모부는 장차 전쟁은 매우 치열하고, 고도로 파괴적이므로, 어느 한 쪽이 전쟁의 기선을 잡으려면 막대한 인명과 물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방어가 소련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믿었다.<sup>48)</sup>

1987년 5월에 소련군사교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바르샤바조약군이 새로운 군사교리의 채택을 선언했으며, 이 조약군에는 소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 발표된 군사교리의 정치적 지침은 핵전이던 재래식전이던 어떤 전쟁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국제적 논쟁을 평화적이고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 군사교리는 모든 면에서 방어적이고 군사력의 첫번째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또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 영토를 요구하지 않을

48) David M. Glantz, *The Soviet View of Future War*(Ft Leavenworth, KS : Soviet Army Studies Office, 1990), pp. 1-2.

것이며, 적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이 교리는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을 받아들여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방어에 적합한 군사력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그리고 이 조약기구의 주요목표가 전쟁예방이라고 선언했다.<sup>49)</sup>

전쟁예방을 강조한 점이나 기타 전체적으로 보아 이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은 혁명적 변화이었다. 소련군사교리가 핵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래식 전쟁까지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군사교리는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하는 위협평가를 반대하고 인류의 공통적인 이해를 근거로 위협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쟁의 예방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익이 아니라, 전쟁의 예방은 전 인류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혁명적인 군사교리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성」과 「합리적 충분성」에 관한 개념논쟁은 지속되었고, 소련군부지도자들(전통파)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장관 야조프는 종전과 다름없이 충분성이란 병력과 군사장비의 질과 양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군사적 위협과 정확하게 동등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합리적 충분성」을 미국과 나토의 위협이라는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0)</sup> 따라서 서구의 분석가들은 바르샤바조약군의 새로운 군사교리는 서구로 하여금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낮게 평가하려고 고안된 선전이라고 평가했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이처럼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고 군사교리가 방어적, 나아가 전쟁예방을 강조하고 군사력을 방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유지한다고 선언했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와 관련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혁명적인 정치적 개념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군구조, 군사력건설, 나아가 군사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1988년 12월 고르바췌프가 UN연설에서 소련이 재래식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바르샤바조약군 군사교리의 정치적 지침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의 현실적 변화를 추구하고

49) "USSR: Official Document Berlin WP PCC Meeting" in *JPRS UMA 88 010 L*, p. 3.

50) Dmitri Yazov, "Warsaw Treaty Military Doctrine-For the Defense of Peace and Socialism", *International Affairs*, vol. 10, no. 3(Oct. 1987), p. 5.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사적 측면에서도 「방어성」과 「합리적 충분성」의 개념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1989-1990년 사이에 중앙과 동유럽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즉 독일이 통일되고, 바르샤바조약군이 해체되어 모든 면에서 소련군사교리는 방어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군사교리를 대규모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사건을 또 하나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걸프전쟁(Gulf War, 1990-91)이었다. 걸프전은 소련으로 하여금 자신의 군사교리를 매우 심각하게 재검토하도록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장차 전쟁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장차 전쟁의 유용성, 본질, 결과; 그리고 그 당시 미국과 진행중인 군비통제의 협상방식을 재검토하고 양적인 문제보다 질적인 문제를 강조하게 만들었다.<sup>51)</sup>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소련에 영향을 주었다. 걸프전쟁 발발 전에 소련이 갖고 있었던 관심과 우려사항, 즉 소련보다도 고도로 발달된 기술의 재래식 무기들이 현실적으로 확인되었다. 고도의 정밀유도무기가 광범위하게 투입된 모든 전투들은 소련의 전투력 측정기준을 무시했고, 소련이 갖고 있었던 군종, 병종의 연합작전개념에 충격을 주었다.<sup>52)</sup> 소련은 일찍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로 갖추어진 무기와 장비면에서 서구와 경쟁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계속 연합작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걸프전의 전투양상은 충격적일 수 밖에 없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기습공격에 대한 소련의 전통적인 공포감은 걸프전 후에 더욱 높아졌다. 서구공격에 대해 완충지대였던 중앙 및 동부유럽국가들이 사라졌고 바로 눈앞에 나타난, 소련보다도 훨씬 발전된 나토의 군사기술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소련 내에서는 군사교리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 방어적이어야 하는가, 공격적이어야 하는가하는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 논쟁의 흐름은 「방어」란 현실적으로 실행불가능하며, 군사교리는 공격과 방어

51) Glantz, *Soviet and Commonwealth Military Doctrine*, pp. 11-12.

52) *Ibid.*, pp. 12-13.

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흘렀다. 특히 총참모부도 방어란 반격작전의 준비를 기초로 하여야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면에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무기들에 의한 전투에서 반격작전이란 무용지물이란 주장도 있었다.<sup>53)</sup> 이러한 논쟁은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러시아연방을 괴롭히는 소연방의 유산으로 남겨졌다.

## 5. 결 론

러시아에서 군사교리는 제정러시아 말기 때부터 군대에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공산주의 정권 수립 후 푸룬제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국가문서로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 핵과 미사일의 등장, 공산주의체계의 붕괴가 있었지만 군사교리의 의미와 중요성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공산주의 시대에 군사교리는 군사정치적 측면과 군사기술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군사정치적 측면은 전쟁원칙, 전쟁관, 장차전의 유형 등을 포함하고, 군사기술적 측면은 군사정치적 지침을 반영하면서, 군사력 건설, 군사전략, 작전술 등, 전쟁술을 포함하고 있다.

소연방의 군사교리 전통은 소연방의 후신인 러시아연방에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이 탄생된 이후 1993년 11월에 처음으로 군사교리가 공포되었고, 2000년 4월에 수정 보완된 군사교리가 두번째로 발표되었다. 오늘날 군사교리는 국가문서로써 그 역할과 중요성에서 과거 공산주의 시대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러시아연방은 국가문서로써 「군사교리」 이외에 「국가안보개념」, 「외교정책개념」, 「정보안보교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이 군사교리와 상호 연계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

53) *Ibid.*, pp. 17-19.

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이 군사교리의 정치적 측면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개념은 군사교리보다 상위개념 역할을 하므로, 군사교리의 범위가 점차 군사력 건설과 운영쪽으로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KCS I